

원저

급성기 중풍 환자의 사상체질과 안면피부에 관한 상관성 분석

여현수, 이시형, 하유근, 정기용*, 백중우*, 최유경, 김동우, 박종형,
조기호**, 고성규***, 한창호****, 방옥선*****, 전찬용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경원대학교 인천한방병원 내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한국한의학연구원*****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sang Constitution and the Facial Skin in Acute Stroke Patients

Hyeon-su Yeo, See-hyung Rhee, Yu-chun Hsia, Ki-yong Jung*, Jong-woo Baik*,
You-kyung Choi, Dong-woo Kim, Jong-hyung Park, Ki-ho Cho**, Seung-gyu Ko***,
Chang-ho Han*****, Ok-Sun Bang*****, Chan-yong Ju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won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yungwon University In-cheon Oriental Medical Hospital*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s: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asang constitution and the facial skin in acute stroke patients

Methods: In the time of period Mar. 2007 to Jun. 2007, 103 patients with stroke admitted in th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of Kyungwon University Seoul Oriental Medical Hospital, Kyungwon University Incheon Oriental Medical Hospital, Kyunghee University Oriental Medical Hospital, Dongguk Il-san Oriental Medical Hospital were included. We assessed the type of Sasang constitution, and the type of Sasang constitution of 51 patients were confirmed. We investigated general characteristics, stroke typ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asang constitution and the facial skin.

Results: The color of face hav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y Sasang constitution. But So-yang have blue and purple colored lips than So-eum and Tae-eum have.

Conclusions: In this study, we f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Sasang constitution and the facial skin in acute stroke patients. But it seems necessary to investigate more cases to concrete conclusion on this theme.

Key Words : Stroke, Sasang constitution, Facial Skin

교신저자 : 전찬용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20-8 경원대학교 서울한방병원 2내과

전화 : 02-425-3456

팩스 : 02-425-3560

E-mail : jancy@kyungwon.ac.kr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Korea (M1052701000005N270100000).

서론

중풍은 전 세계적으로 3대 사망원인의 하나로서, 의학의 발달과 경제발전은 평균수명의 연장을 가져와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풍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가 현저히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심장질환과 교통사고와 함께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¹⁾.

중풍은 일단 발병하면 사망하지 않더라도 반신불수, 언어불리, 구안와사, 신지불청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장기적으로 남아 사회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기 어렵고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질환 중 하나이다¹⁾.

사상의학에서는 사상인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사상인의 성정의 편급에서 온다고 보고 중풍의 원인도 성인병적 차원에서 평소 체질적 섭생의 불균형에서 나오는 만성적인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으며 중풍의 전구증에서 발병까지 진행과정도 사상인의 체질적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²⁾.

무엇보다 예방과 조리가 중요한 중풍질환에서 이러한 사상의학적 관점에서의 치료가 의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사상의학은 사람의 체질적인 구분을 통해 각 체질에 대한 생리와 병리, 진단감별법 그리고 치료와 약물에 이르기 까지 서로 연계를 갖고 이를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상의학에서 사용되는 체질진단의 방법은 거시적인 방법들로서 사상체질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와 그에 대한 진단기법의 중요함이 제기되고 있다³⁾.

한의학에서 환자를 살펴 병정을 이해하는 기본방법으로 四診, 즉 망문문절진을 이른다⁴⁾. 이 중 망진은 사진법 중 의사가 시각을 사용하여 환자의 병인, 병정, 병기를 파악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예후를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외부를 관찰하여 내부의 병변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는 인체는 하나의 유기체로, 각각의 부분은 자신만의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전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한의학 원리를 반영한다. 특히 인체 장부기혈의 성쇠와 사기와 기혈간 난동이 모두 면부에 반영된다고 하여 안색을 한의학 진단의 중요지표로 사용하였다.

사상체질과 관련된 중풍의 연구를 살펴보면, 선⁵⁾ 등은 급성기 중풍환자의 사상체질에 따른 체 특성 분

포에 관한 임상적 연구에서 사상인과 체형, 과거력, 진단명, 혈액학적 소견, 음주 등 기호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이⁶⁾ 등은 사상체질과 임상검사와의 상관관계에서 사상체질을 임상검사의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안⁷⁾ 등은 사상체질별 뇌혈류 변화에 관한 임상적 고찰에서 태음인이 중풍발생의 조건이 되는 뇌혈관 변성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김⁸⁾ 등은 사상체질에 따른 뇌혈관위험인자의 분포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태음인이 타 체질에 비해 중풍의 위험인자가 많음을 언급하였다.

중풍의 관리에 있어 사상의학과 연관성을 살펴 보고 안면상태와의 관계를 살펴 사상의학관점에서의 기존의 연구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저자는 급성기 중풍 환자 중 사상체질분류검 사지Ⅱ 결과상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중 한 가지 체질로 판명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상체질과 안면 피부에 관한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1. 연구기간

2007년 3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내과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대상병원

경원대학교 서울한방병원, 경원대학교 인천한방병원, 경희의료원,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대상환자

신경학적 결손 증상과 Brain CT 또는 MRI의 병변 부위가 일치하는 중풍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발병 후 4주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중풍의 전조증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의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1) 신경학적 결손증상이 24시간 이내에 소실된 일과성뇌허혈발작 환자
- (2) 과거력상 중풍을 앓은 환자
- (3) EDH, SDH 등을 포함하여,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풍 환자
- (4) 정상적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중풍 환자

4. 설문지 및 조사방법

“뇌혈관질환의 한의변증진단 표준화 및 과학화기반연구”를 위해 전문가들의 합의로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표준작업지침서 교육을 받은 전공의들이 환자와의 질의응답방식으로 작성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5. 통계 분석

SPSS(Statistical Program for Social Science) for Windows 13.0을 활용하여, Chi-square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General characteristics		n(%)
Sex	male	30(58.8%)
	female	21(41.2%)
Age	≤ 49 years	7(13.7%)
	50~59 years	7(13.7%)
	60~69 years	19(37.3%)
	70~79 years	16(31.4%)
	≥ 80 years	2(3.9%)
Diagnosis	ICH	7(13.7%)
	SAH	1(2.0%)
	Cb-inf.	43(84.3%)
TOAST classification	LAA	4(7.8%)
	CE	0(0%)
	SVO	37(72.5%)
	SOE	1(2.0%)
	SUE	0(0%)

ICH, intracranial hemorrhage; SAH, subarachnoid hemorrhage; cb-inf, cerebral infarction
 TOAST, trial of ORG 10172 in acute stroke treatment; LAA, large artery atherosclerosis
 ; CE, cardioembolism; SVO, small vessel occlusion; SOE, stroke of other determined etiology
 ; SUE, stroke of undetermined etiology

Table 2. The Comparison between Sasang Constitution and Facial Skin

Variables	Sasang Constitution			p-value
	So-Eum	Tae-Eum	So-Yang	
얼굴빛이 창백하다	2(3.9%)	2(3.9%)	1(2.0%)	0.496
누렇게 뜨거나 때가 낀 것 같다	3(5.9%)	3(5.9%)	4(7.8%)	0.865
얼굴빛이나 안검 밑이 검푸르다	0(0%)	1(2.0%)	2(3.9%)	0.560
얼굴빛이 희지만 광대뼈 부위가 붉다(관홍)	1(2.0%)	0(0%)	1(2.0%)	0.513
얼굴빛이 붉은 편이다	4(7.8%)	6(11.8%)	5(9.8%)	0.655
안검 주위가 검다	1(2.0%)	3(5.9%)	6(11.8%)	0.401
피부에 자반이 있다	1(2.0%)	1(2.0%)	4(18.2%)	0.455
환자의 입술색이 청자색이다	3(5.9%)	8(15.7%)	16(31.4%)	0.024

values were n(%).

결과

1. 연구대상 환자들의 일반적 특징

총 103례의 환자들 중, 사상체질분류검사지Ⅱ로써 사상체질을 분석 시도한 환자가 79례였으며, 이중 28례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나머지 51례를 대상으로 사상체질과 안면피부와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Table 1).

2. 사상체질과 안면피부와의 상관관계

대상 환자 중 ‘얼굴빛이 창백하다’, ‘누렇게 뜨거나 때가 낀 것 같다’, ‘얼굴빛이나 안검 밑이 검푸르다’, ‘얼굴빛이 희지만 광대뼈 부위가 붉다(관홍)’, ‘얼굴빛이 붉은 편이다’ 등 얼굴 색과 관련된 질문에 있어서는 모두 유의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기타 안면 피부와 관련된 항목 중 ‘환자의 입술색이 청자색이다’가 소양인에게 있어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p<0.05$)(Table 2).

고찰 및 결론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점차 중풍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풍은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일질환이다⁹. 중풍은 뇌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해 국소적 신경학적 결손을 나타내는 뇌혈관 질환을 포함한 것으로 이는 어느 한 가지 인자에 의해 발병하지 않으며 섭생에서 출발하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자들이 작용하여 발병한다⁹.

한의학에서 체질의 개념은 <황제내경>의 오태인 체상으로부터 시작하여 금원대의 주진형, 명대의 장개빈, 청대의 섭천사, 진념조, 장남 광조원, 서봉천 등 많은 의가들이 언급하였다⁸.

사상체질은 조선시대 의학자,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A.D 1837-1900)가 창안한 사상의학의 핵심 이론이다. 그의 저서인 동의수세보원⁶에 의하면 사람의 체질은 외모와 심성, 체질증과 체질병증의 특징에

따라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4가지 체질로 나누고, 같은 병이라 하더라도 해당 체질에 따라 원인이 다르고 병증도 일련의 특성이 있으며 약물의 반응성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체질에 맞게 치료하고 예방, 조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 또한 사상인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성정의 편급에서 온다고 보았으며, 중풍의 원인도 체질적 섭생의 불균형에서 오는 만성적인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으며 중풍의 전조증에서 발병까지의 진행오가정도 사상인의 체질적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고 보았다⁵.

황제내경에서는 망진과 관련하여 사람의 정신, 섹택, 형체, 동태 및 발, 부, 설질, 설태, 지문, 대소변과 땀 등 외부로 드러난 정보와 내부에 간직된 장부의 상태에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하였다¹⁰.

사상체질의 치료에 있어 체질감별은 매우 중요하여 체질감별을 객관화 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 김등¹¹은 사상체질의 객관화에 대한 통계적 연구를 통해서 음성, 얼굴 기형등의 변수를 통하여 객관화 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김 등³은 사상체질분류 검사지2에 대한 연구에서 QSCC2가 체질감별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배 등¹²은 사상체질의 감별법과 병리적 특징에 관한 고찰에서 사상인 체질 감별시 동무 이제마의 의학이론의 전반적 이해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사상의학의 체질감별에 있어서도 망진이 사용되기도 하였다¹³. 또한 김 등¹⁴은 사상체질(四象體質)과 안면피부(顔面皮膚)의 상태와의 관련성에서 사상인 각각의 전신 피부상태를 바탕으로 피부의 유분, 수분, 민감도, 안색의 좋고 나쁨, 피부의 두께와 결, 모공상태 등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면부 망진과의 사상인 체질과의 상관성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저자는 “뇌혈관질환의 한의변증진단 표준화 및 과학화기반연구”를 위해 시행된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급성기 중풍 환자 103례 중 사상체질분류검사지Ⅱ를 통하여 사상체질을 분석하고, 그 중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중 한 가지 체질로 판명된 환자 51례를 대상으로 하여 사상체질과 안면피부에 관한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상 환자 중 ‘얼굴빛이 창백하다’, ‘누렇게

게 뜨거나 때가 낀 것 같다’, ‘얼굴빛이나 안검 밑이 검푸르다’, ‘얼굴빛이 희지만 광대뼈 부위가 붉다(관홍)’, ‘얼굴빛이 붉은 편이다’ 등 얼굴 색과 관련된 질문에 있어서는 모두 유의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기타 안면 피부와 관련된 항목 중 ‘안검 주위가 검다’, ‘피부에 자반이 있다’에서 역시 유의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다만 ‘환자의 입술색이 청자색이다’가 소양인에게 있어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p<0.05$)

일반적으로 얼굴빛이 창백한 것은 氣虛證에 해당하며, 얼굴빛이 누렇게 뜨거나 때가 낀 것 같은 것은 濕痰證에 해당하며, 얼굴빛이 검거나 푸른 것은 瘀血證에 해당하고, 얼굴빛이 희지만 광대뼈 부위가 붉은 것(관홍)은 陰虛證에 해당하며, 얼굴빛이 붉은 것은 火熱證으로 본다. 이 밖에 피부에 자반이 있거나 입술이 청자색인 경우에는 瘀血證으로 본다¹⁵⁻¹⁶⁾.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양인의 입술색이 청자색을 띠는 경향이 瘀血證과 관련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상 환자수가 비교적 적었으며, 그 중에서도 사상체질분류검사지Ⅱ를 통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환자 및 소음인·태음인·소양인 중 특정 체질로 나타난 환자가 적어 연구 규모가 작았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과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증례를 통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오용성, 박창국, 박치상. 중풍환자 125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동서의학. 27(3):15-26.
- 송일병. 사상의학적 중풍관리법. 한방성인병학회지. 1995;1(1):43-9.
- 김중원, 이현민, 조훈석, 전수형, 김은영. 四象體質分類檢査紙Ⅱ에 대한 연구. 東醫大 韓醫學研究所 논문집. 2003;7:53-65.
- 김완희. 한의학원론. 서울: 성보사; 1995, p. 209.
- 선중주, 정재한, 최창민, 김석민, 김창현, 민인규 등. 급성기 중풍 환자의 사상체질에 따른 체특성 분포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7; 28(1):34-46.
- 이용구, 설인찬. 사상체질과 임상검사 결과와의 상관관계.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0; 3(2):383-97.
- 안탁원. 사상체질별 뇌혈류 변화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2;11(1):1-9.
- 김승은, 김도형, 윤성우, 고창남. 사상체질에 따른 뇌혈관질환 위험인자의 분포에 대한 비교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1;22(3):379-82.
- 박정섭, 정승민, 이시형, 정기용, 여현수, 하유근 등. 뇌졸중 환자에 대한 연례보고(2004년). 대한중풍학회지. 2006;7(1):23-33.
- 김경철, 이용태. 內經에 나타난 局所 部位 望診에 對한 研究. 동의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0;4:39-59.
- 김대윤, 이재원. 사상의학 체질진단의 객관화에 대한 통계적 연구. 1999 Proceedings of the Spring Conference, Korean Statistical Society. 1999:228-33.
- 배문용, 김성훈. 사상체질의 감별법과 병리적 특성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8;7(1):487-515.
- 김주, 성리명리론. 고양: 대성문화사; 2003, p. 40-4.
- 김경란, 이승희, 강수경. 사상체질과 안면피부의 상태와의 관련성. 한국미용학회지. 2005;11(3):231-8.
- 대한한 의사협회 중앙보험위원회. 한국한의표준 변증분류. 서울: 유천; p. 9-18.
- 이봉교, 박영배, 김태희. 韓方診斷學. 서울: 성보사; 1992, p. 48.